

자연파괴가 인간과 사회를 파괴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편견을 뒤돌아보다—

1년 중 7~8월 여름엔 장마가 든다. 그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미리미리 장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해마다 장마 피해를 입고 있다.

금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큰 장마가 아니었는데도 산사태가 나고, 동네가 흙더미에 깔려 사람들이 죽는 원시적인 장마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번 피해의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몇몇 사람들의 취미를 위한 골프장 건설 조성 때문에 일어났다.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취미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 공사의 부실로 사람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문에 의한 짓이 분명한 곰쓸개 빼기 돈도가네가 지난 주, TV에 고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건전한 양식으로서는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현장 고발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가?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의 짓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당연히 병들게 마련인데, 그 원인의 뿌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자연과의 모든 유대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을 정복하였다고 하여 자

연과는 거리가 먼 것 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인간의 이성은 아주 불완전한 것이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한 지식이나 적응력도 없으며, 잃어버린 본능을 회복시킬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부터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생명의 신비란 가장 복잡하고 무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활동의 장(場)으로서 외부 세계와 함께 자신의 내부 세계를 한 몸에서 지닌 현상의 존재인 것이다.

자연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생명을 창조하였는데, 이것에 비한다면 인간의 지식은 유지할 만큼 유한한 것이다.

인간 자신의 생명과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자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으며, 반면 인간은 자연을 너무 경시하고 있다.

물질 문명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점차 상실해 하는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며, 한편으로 현대 문명의 부산물인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차츰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선 단 하나뿐인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생태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1. 자연파괴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생명의 생존 단계는 생명체와 생존 지역과 기후, 그리고 생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 의존의 단계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생태계 중에서 어떤 것은 비교적 단순하게,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화 하였다. 생태계는 오랜 기간 동안을 진화해 오면서 결국 주어진 조건에 비교적 안정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종류의 씨앗이 바람이나 날짐승에 의해서 어떤 지역으로 옮겨져 갔다. 강렬한 햇볕에 적응한 묘목은 자랐지만, 반대로 어떤 씨앗은 발아(發芽)조차 하지도 못하였다.

묘목은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이 나무는 그들이 필요한 다른 종류의 묘목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 자라게 하였다. 그늘 밑에서 자란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준 나무보다 훨씬 크게 자라게 되어 그늘을 만들어 준 나무는 결국 멸종하게 되고 만다.

크게 자란 나무는 또 다른 종류의 묘목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이 조건 하에서 자란 나무는 그 조건을 만들어 준 나무를 멸종시



물질 문명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점차 상실해 가는 '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며, 한편으로 현대 문명의 부산물인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차츰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선 단 하나뿐인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생태계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토양과 기후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나무만이 살아 남게 되어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삼림은 초원(草原)과 끊임 없이 싸우고 있다. 나무는 많은 물이 필요한 반면 풀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풀은 토양속의 광물질이 많이 필요한 반면 나무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햇빛을 막아 풀에 그늘이 지게 하고, 풀이 자라는 곳에는 나무가 필요로 하는 습기를 빼앗아 간다.

강우량과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삼림과 초원의 경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안정을 이루게 된다.

현재, 식물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림을 보호하는 일은 학술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 후손을 위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2. 멸종되고 있는 야생동물

동물계에서는 대단히 많은 진화의 단계를 거칠 지라도 생명의 기본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동물은 자연의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삶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동물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결코 자연을 초월할 수는 없다.

처절한 자연의 법칙에서는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며 그러므로서 다른 생물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끊이지 않는 생존의 순환으로서 개체는 죽으나 생명은 계속되는 것이다.

야생 동물들이 서로 잡아 먹는 것은 오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간들만이 복수와 쾌감을 위해서 동물들을 살생한다. 위장된 사냥인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즉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쾌락을 맛보기 위해 무고한 야생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또한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을 필요 이상으로 무자비 하게 남획함으로써 고래는 물론 거의 대부

분의 야생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수 백만 마리에 달했던 들소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피 상인들은 긴드레스를 하나 만드는데 12마리의 표범 생가죽을 써서 지금도 귀부인들의 허영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유산인 야생 동물들의 멸종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모든 야생 동물은 전설 속에서나 그 이름을 남기고 멸종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동물원에서나 그 일부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된다면 결코 다시는 되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구상의 다른 동물을 멸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면서 한편으로 멸종의 위기에 있는 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동물을 가장 쉽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과 인간이 힘을 합치는 일이다.

모든 동물들은 그들이 생활할 장소를 잃게 됨으로써 멸종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생활 여건에 적응함으로써 그 개체의 무리를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생활 범위를 확대시켜 갈 수 있었다.

그 밖에 멸종된 종(種)들은 변해진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응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큰 야생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멸종의 한계점에 가까와지고 있는 것이다.

야생 동물이나 식물 또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자연의 모습은 기술 문명의 불모성(不毛姓)에 대한 해독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야생 생물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또한 생물학적인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임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인간 자신도 야성(野姓)이 있다는 과거를 일깨워 주는 마지막 존재로 남아 있다. 인간 자신도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여건이 차츰 파괴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척추를 가진 동물들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던 시기에 지능이 보다 발달하였던 인간은 360여종에 달하는 비슷한 종류의 표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멸종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는 매우 허약한 존재인 것이다.

척추를 가진 동물들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했던 시기에 지능이 보다 발달하였던 인간은 360여종에 달하는 비슷한 종류의 표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멸종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생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사실은 인간들이 많은 동물들의 생활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1천여 종 이상에 달하는 척추 동물 또는 유사한 동물들을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간 자신이 이룩한 문명 자체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은 20세기의 인간들을 야만인들이라고 낙인 찍을 것이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상품화되어 팔려 가고 팔려 오는 일들이 근대에 와서 급격히 증가되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애완용(愛玩用)이라는 명목하에 무책임하고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야생 동물들의 생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학 연구용이나 학술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원숭이의 숫자는 너무나 엄청나서 이제는 산채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가고 있다.

표범, 흰표범, 치이타(cheetah) 등 반점이 있는 야생의 고양이과 동물들과 바다 표범이나 수달 종류에 속하는 동물들의 모피(毛皮). 각종의 악어, 도마뱀, 뱀 등의 가죽 그리고 상아, 물소뿔 등과 같은 동물들에게서 얻은 물건들의 시장 거래로 인해서 동물의 지역적인 멸종과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의 엄청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 무책임하게 조직되는 관광 여행, 수렵 여행 등은 몇 종류의 야생 동물 특히 북극곰, 해마, 범 또는 자가 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고래잡이가 하나의 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

서 마구 남획하게 된 것은 지구 자원을 상업적인 무모한 약탈과 살생으로 몰고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야생 동물들에게서 얻은 상품들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단순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나 또는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야생 동물을 멸종시킨다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면에서의 죄악에 대하여 별로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은 가혹한 상업 거래가 야생 동물에 대하여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결론 밖에는 안된다.

나라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육식 동물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그 태도도 많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무차별 포획으로 부터 올빼미와 같은 육식동물에 대한 보호의 손길이 뻗쳐 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육식 동물이 인간에 대하여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들 동물들이 가축 또는 인간 자신이 사냥하고 낚시하기를 원하는 동물들을 잡아 먹는 죄를 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옛날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가축은 드문 경우지만 야생의 육식동물에 의하여 잡혀먹히는 예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항상 특별한 상황에서거나 또는 한 마리 육식동물이 쉽게 잡아 먹을 수 있는 장소에 가축이 있었을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축을 해친 그 한 마리 만을 살해할 것이지 그 동물 종류 전체를 살생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筆者 : 本會 顧問 / UNEP 글로벌 500 委員)